

전남광주 벤처투자 반등에도 수도권과 격차 ‘여전’

광주 336억·전남 106억원…서울·경기 2조9983억원

전국 투자 역대 최대 속 지역 벤처 생태계 소외 우려

전국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전남광주지역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년보다 99.5%, 전남은 404.4% 늘었지만 투자액은 각각 336억원, 106억원에 그치면서 지역 벤처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에서 소외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벤처투자는 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68억원과 비교하면 99.5% 증가한 것으로, 사실상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광주지역 벤처투자는 2022년 312억원, 2023년 205억원, 2024년 367억원으로 300억원 안팎을 기록하다 지난해 168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다시 300억원대로 올라서며 투자 회복세를 보였다.

전남은 증가율만 놓고 보면 더욱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벤처투자는

106억원으로 지난해 21억원보다 404.4% 증가했다.

2022년 33억원, 2023년 1억원에 불과했던 투자액은 2024년 12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21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100억원대를 회복했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투자 규모와 격차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벤처투자는 3조9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다.

서울은 1조7489억원으로 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 역시 1조2494억원을 기록하며 서울 못지않은 투자 규모를 보였다. 인천도 99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을 합친 442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경기지역의 벤처투자는 2025년 상

반기 6038억원에서 올해 1조2494억원으로 106.9% 증가했다. 광주의 증가율 99.5%보다도 높다. 서울은 같은 기간 1조3943억원에서 1조7489억원으로 25.4% 증가했고, 인천은 676억원에서 990억원으로 46.3% 늘었다.

수도권과 전남광주의 투자액을 단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벤처투자액은 광주의 약 52배, 전남의 약 165배에 달했다. 경기 역시 광주의 약 37배, 전남의 약 118배에 이른다.

인천 한 곳의 투자액 990억원도 광주와 전남을 합친 44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남광주 두 지역의 벤처투자를 합쳐도 수도권 3개 지역 가운데 가장 투자액이 적은 인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같은 격차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벤처투자는 2022년 상반기 3조614억원에서 2023년 1조5133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24년 1조8746억원, 2025년 2조658억원, 올해 3조972억원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는 같은 기간 312억원→205억원→367억원→168억원→336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했고, 전남은 33억원→1억원→125억원→21억원→106억원으로 변동성이 더욱 컸다.

수도권은 벤처투자가 감소한 시기에도 투자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전남광주는 대형 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연도별 투자액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투자 쏠림 현상은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비수도권 전체 벤처투자는 1조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7% 증가했지만 수도권 투자액은 3조972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수도권 투자액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남광주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와 전남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을 합쳐도 442억원으로 수도권 전체의 약 1.4%에 불과하다.

전국 벤처투자가 AI와 반도체, 로봇스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벤처기업들이 투자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산업 생태계의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용성 기자 yo1404@



광주신세계는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1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으로 광주신세계의 광주비엔날레 누적 후원금은 20억7000만원에 달했다.

광주신세계, 광주비엔날레 누적 후원 20억 돌파

비엔날레 성공 기원…30년 넘게 지역 문화예술 지원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광주비엔날레 후원 누적액 20억원을 넘어섰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이후 30년 넘게 매회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 대표 문화행사과 동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1억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으로 광주신세계의 광주비엔날레 누적 후원금은 20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고광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산업부시장,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과 상생한다는 취

지로 현지법인 설립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된 1995년부터 매회 후원금을 전달하며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메세나 활동은 광주비엔날레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995년 개점 이후 본관 1층에 광주신세계갤러리를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전시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

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도 2005년부터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지역 미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2024년부터 광주학생미술대전 후원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일회성 행사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1995년 광주신세계와 함께 시작된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 뿌듯하다”며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줄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빠져나갔던 스타벅스 고객, 다시 돌아왔다

앱 사용자 11% 반등…한 달 새 73만명 회복

스타벅스가 흔들리던 한 달을 지나 다시 고객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앱 사용자 수가 한 달 만에 11% 넘게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메가MGC커피는 앱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결제 규모까지 스타벅스에 바짝 다가서면서 국내 커피 시장의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19일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2026년 7월 스타벅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7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6월 641만3000명보다 73만 1000명 늘어난 것으로, 한 달 사이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5월 754만8000명에서 6월 641만3000명으로 15%가량 감소했던 스타벅스가 한 달 만에 다시 이용자를 끌어올린 것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에도 카페 브랜드 앱 사용자 수 1위를 지켰다.

메가MGC커피가 300만명으로 2위에 올랐지만, 스타벅스는 메가커피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14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다만 스타벅스의 회복세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7월 이용자 수는 5월보다 5.4% 적고 지난해 같은 달 766만4000명과 비교해서도 6.8% 낮다.

스타벅스의 반등과 동시에 메가커피의

성장세도 거세다.

메가MGC커피의 7월 앱 월간 사용자는 300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279만명보다 7% 증가한 규모다. 컴포즈커피 142만명, 투썸하트 140만명, 뽕다방 84만명, 이다야앰버스 59만명이 뒤를 이었다.

결제 시장에서는 두 브랜드의 간격이 더욱 좁혀졌다.

7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카페 브랜드는 스타벅스였지만 메가커피가 2위에 올랐다. 특히 메가커피의 결제추정 금액은 스타벅스의 94.9%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같은 달 69.5%였던 것과 비교하면 25.4%p 상승한 수치다.

결국 현재 커피 시장은 한쪽의 일방적인 추격이라기보다 양쪽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앱 이용자 수에서는 여전히 스타벅스가 메가커피보다 두 배 이상 앞서 있는 만큼, 메가커피의 성장만으로 스타벅스의 우위를 위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결제 규모에서는 메가커피가 스타벅스의 95%에 육박하면서 소비 빈도를 앞세운 저가 커피 브랜드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